

진상 규명 못한채 활동 마무리한 사참위

“세월호 침몰 원인 확인 불가... 국민께 죄송”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사참위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간에 걸친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참위는 양 참사에 대해 정부 및 관련 기업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 보상 등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했다. 다만 이목이 집중됐던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도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려 반쪽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참위는 지난 7일 열린 제152차 전원위원회에서 ‘외력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으나 증명하지 못했다’,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회의 입장과 함께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참위 진상규명국의 입장을 함께 담기로 의결했다.

문호승 사참위원장은 이날 침몰 원인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채 상반된 결론을 내놓았다는 비판에 “외력의 가능성도 있지만,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에 대한) 여러 반론을 고려했을 때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 외력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합의된 내용이다”면서 “상반된 결론을 병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명확히 침몰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력에 의한 침몰인지 내 인실에 따른 침몰인지 밝힐 수 있는 명확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이라며 “명확한 침몰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도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8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원회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결론 “직접 증거 발견 실패... 규명 실패 비판받을 것”

“잠수함의 충돌설 등 외력설에 대해서는 ‘잠수함이 그날 거기에서 항해를 했는지, 혹은 사고가 생겨 수리한 기록이 있는지 등은 없다고 국방부에 답을 받았다’면서 ‘항적을 보기 위해 군 측에 레이더를 보는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군사 자료가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조사한 내용들은 철저하게 검증된 게 아니다. 반대를 논리를 갖고 철저하게 조사하지는 못했다”면서 “외력에 의해 세월호가 침몰했다면 결국 잠수함밖에 없는데, 당시 해역에 잠수함이 존재하고 잠항하고 있었는지는 조사하지 못했다”고 조사한 결과를 언급했다.

문호승 사참위 지원소위원장도 “선체의 손상 부위나 과회전된 핀 안전 기 등 외력이 추정되는 부분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필요한 자료 및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사참위는 자료 제출 요구권과 출석 답변 요구권 그리고 압수수색 청구 의뢰권을 갖고 있었다”면서 “우리가 압수수색을 의뢰하고,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을 청구하려면 사참위에서 기본적인 조사를 통해 혐의나 문제를 드러내야 하는데, 애초에 조사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압수수색 청구 의뢰 등 권한을 활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9일 반중 정서를 조망한 책을 소개하며 “국익과 실용을 조화시키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랜만에 책을 추천한다”며 김희교 교수가 쓴 ‘쟁쟁주의의 탄생’을 소개했다. 그는 “도발적인 제목에 매우 논쟁적”이라며 “책 추천이 내용에 대한 동의나 지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이며 우리 외교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념에 진실과 국익과 실용을 조화시키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며 “인론이 전하는 것이 언제나 진실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 사할 및 조사 방해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해양 재난 수색 구조 체계 개선,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개선, 재난피해자 인권 침해 및 혐오표현 확산 방지를 위한 개선, 선사·선원 안전운항능력 및 책임 강화, 여객선 등 선박 안전 관리체계 개선 등을 권고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서도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위해성 감시 실패 확인, 참사 확인 후 정부의 피해 대응에 대한 문제 조사 실시, 원료물질 제조 및 공급기업인 SK케미칼의 참사 유발 책임 확인, 안전성 검토 없는 가습기살균제 출시 확인, 가습기살균제 구매자 내역 입수 및 건강정보 분석 실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한 피해 지원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 필요성 제시, 화학물질 및 제품 관련 재난방지법안 제시 등의 주요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인정 및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 실시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업무상과실 치사상 죄의 공소시효 연장 △피해 입증 책임을 피해 당사자에서 기업으로 전환 △실질적 피해 지원을 위해 ‘구제법’에서 ‘지원법’으로 법 명칭과 내용 개정 △호흡기 및 모든 질환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판정 실시 △기업인권경영 제도화를 통한 기업 책임 강화 △국가 차원의 독성 감시를 위한 국가중독센터 도입 △화학물질 관리 및 관련 정보 소통·제공 체계 구축 등을 권고했다.

사참위 위원들의 임기 및 조사 활동은 10일 종료된다. 사참위는 오는 9일 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뉴스

“균형된 시각 필요”

문 전 대통령, 反中정서 다른 책 ‘쟁쟁주의의 탄생’ 추천

문재인 전 대통령은 9일 반중 정서를 조망한 책을 소개하며 “국익과 실용을 조화시키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랜만에 책을 추천한다”며 김희교 교수가 쓴 ‘쟁쟁주의의 탄생’을 소개했다. 그는 “도발적인 제목에 매우 논쟁적”이라며 “책 추천이 내용에 대한 동의나 지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이며 우리 외교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념에 진실과 국익과 실용을 조화시키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며 “인론이 전하는 것이 언제나 진실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상사를 언론의 눈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눈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의 이번 책 추천은 집권 시절 외교정책 ‘진중’ 논란을 제기했던 언론보도에 애타려 유감을 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며 최근 미국에 기우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우려도 감지된다. /뉴스

최경식 남원시장 당선인 시장직 인수위원회 출범

최경식 남원시장 당선인은 민선 8기 시정비전과 목표 설정과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15명의 시장직 인수위원을 선임하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남원시장 인수위는 ▲신성장 ▲문화관광 ▲교육의료복지 ▲경제농정 ▲행정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인수위원장에는 김주완 남원문화원장, 부위원장에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부총장을 임명하고 전문가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 2명을 위촉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원회는 학계, 산업계, 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 자문위원과 시청 공무원 8명을 파견 받아 최경식 당선인을 보좌해 시 조직과 기능, 예산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의 정책기조를 설정할 계획이다.

최 당선인은 “빠른 시일 내 시정 현황을 파악하고,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시장목표 설정과 공약사항 등 시정 운영의 미래 설계를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여름철 재해 위험요인 사전 제거”

김양원 도민안전실장, 군산 찾아 자연재난 대비 현장행정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9일 여름철 자연재난(호우, 폭염, 가뭄) 대비 군산시 주요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 가동상태 및 여름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여름철 풍수해(호우, 태풍) 재해 예방시설인 내항 배수펌프장을 방문하여 설치현황 등을 점검하고, 우기철 대비 펌프장 가동 준비상태 등을 점검했다.

장마동에 위치한 내항 배수펌프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군산항 인접 지역의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시가지내 침수를 예방하고자 2017년 3월부터 가동중에 있으며, 호우 대비 가동훈련 및 사전 점검 결과 펌프 작동 상태 및 이물질 제거 등 관리상태 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상청 기상 전망에 따르면 6~8월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 저감시설인 ‘인개형 냉각수 시스템’도 함께 점검했다.

중앙로 구시청 광장에 설치된 인개형 냉각수 시스템은 미세한 크기의 인공 안개를 분사해 주위 온도를 최대 10℃ 낮추는 옥외 냉방과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2년간 미운영했으나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5월부터 정상 운영중에 있다.

아울러 최근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고 메마른 날씨가 지속되면서 도내 8개 시군의 발가뭄 상황(6월 7일 기준)이 ‘관심’ 단계로 운영중에 있어, 나포면 서지재에 설치된 저수지 가뭄관리 시스템을 방문하여 설치 상황 등을 점검하고 저수지 관계자에게 도내에 가뭄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용수 공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특별히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비응도에 설치된 재난예경보시설 현장에서 시범방송을 실시

한 결과 정상 작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발생시 전광판 및 예경보 시설 등을 활용하여 재난 정보 및 시민행동요령 등을 인근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피해 최소화해 안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여름철 대책기간에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영수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